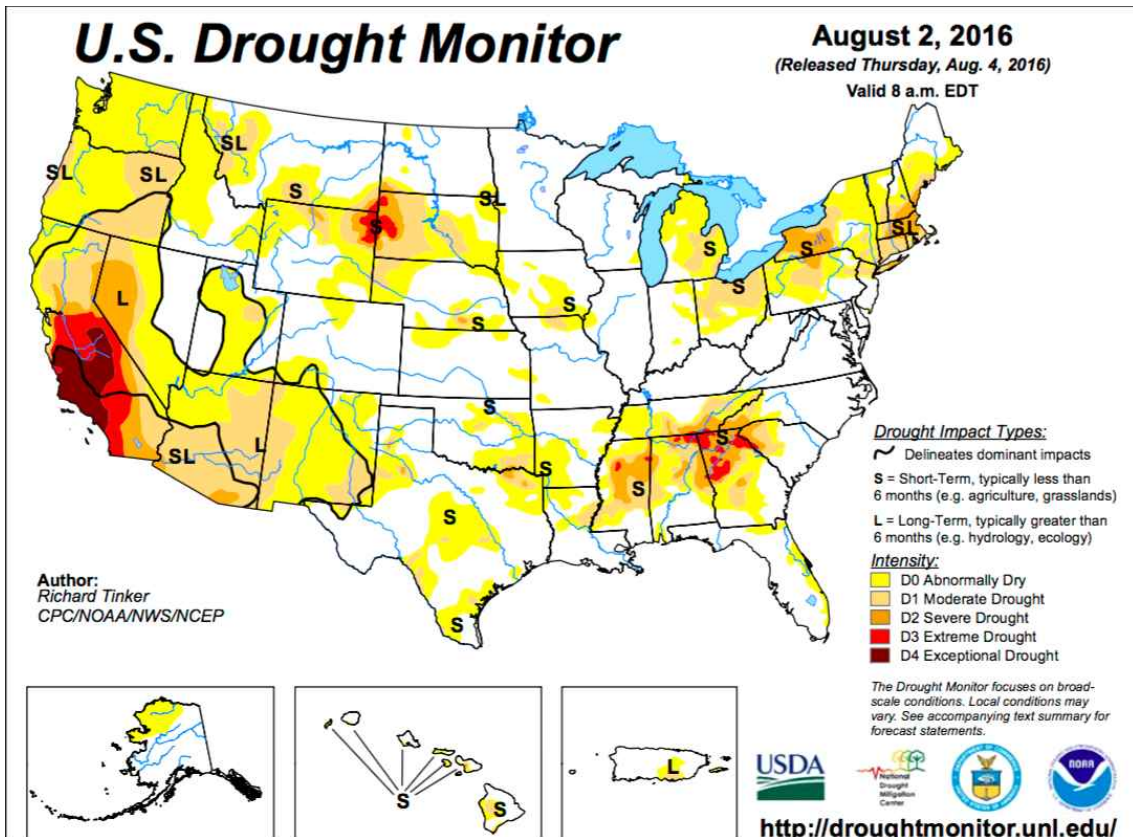


8월 9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(Volume 103, No. 32)

□ 미국 기후 현황(7/31~8/6)

텍사스, 오하이오, 미시간 등에서는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졌다. 남부 고원 평원 일대에서는 지난 한 주간 기온이 평년에 비해 최소 5°F 이상 높았고, 낮 최고기온이 100°F 이상 올라가는 등 더운 날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. 남동부에서는 비가 내리면서 더위를 식혀주었다. 북동부의 뉴욕 서부 및 뉴 잉글랜드 남부에서도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. 보다 남부의 옥수수 재배지 일대에서도 소나기가 내렸다. 하지만 미주리 중부와 북부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에 따라 4인치 이상의 많은 비가 집중되면서 침수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. 중부 평원과 북부 평원 일대에서도 비가 내렸는데, 북부에서는 비로 인해 수확작업이 다소 지연되었다. 태평양 연안 지역 및 북서부에서는 지역에 따라 많은 비가 내리기도 했지만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졌다.



□ 농업 현황 요약(8/1~8/7)

태평양 연안 북서부 및 애리조나 일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평년에 비해 기온이 높은 날씨가 이어졌다. 남부와 오대호 일대에서는 평년에 비해 3°F 이상 기온이 높았고, 미시시피 강 인근지역 및 미 대륙 네 곳의 구석에 위치한 주에서는 평년에 비해 많은 비가 내렸다. 미주리에서는 지역에 따라 6인치 이상의 비가 내렸다.

■ 옥수수

8월 7일 기준, Silking 단계가 끝난 지역은 97%인 것으로 나타났으며,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%p 앞선 상황이고, 5개년 평균에 비해서도 3%p 앞선 것이다. 전체 옥수수 재배지의 53%에 이르는 지역에서 dough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,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%p 앞서는 수치이고, 직전 5년 평균에 비해서도 11%p 앞선 수치이다. 응답자의 74%가 생육상황이 좋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는데, 이는 지난주에 비해서는 2%p 낮은 수치이고,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에는 4%p 높은 수준이다.

■ 대두

지난 8월 7일 기준, 전국적으로 91%에 해당하는 지역이 개화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는데,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%p 앞서고, 5개년 평균에 비해서도 3%p 앞선 수치이다. 꼬투리가 형성된 지역의 비율은 69%였으며,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4%p 앞서고 직전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에도 8%p 높은 수치이다. 켄터키와 미시간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직전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 빠른 성장속도를 보이고 있다. 응답자의 72%가 생육상황이 좋다고 응답했으며, 이는 지난주와 같은 수치이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9%p 높은 수준이다.

■ 겨울밀

아직 수확작업이 종료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지난 한 주간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진 덕분에 수확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졌다. 수확률은 94%인 것으로 나타났고, 이는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2%p 낮고, 직전 5년 평균보다는 3%p 높은 수준이다. 18개 주 가운데 4개의 주에서만 수확률이 90%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.

■ 면화

8월 7일 기준 96%가 squaring 단계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는데,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약간 앞선 수치이고, 직전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에는 비슷한 수준이다. 전국적으로 면화송이가 형성된 비율은 70%이며,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5%p 앞서고, 직전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에는 2%p 낮은 수치이다. 9%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면화송이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3%p 앞서고, 직전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에도 2%p 앞서는 수치이다. 텍사스 남부 일부 지역 등에서는 수확작업이 시작되었다. 전국적으로 48%의 응답자가 생육상황이 좋다고 응답했으며, 이는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에는 2%p 낮은 수치이고,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에도 8%p 낮은 수준이다.



■ 쌀

8월 7일 기준 전체 재배지의 86%가 출수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으며,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10%p 앞서고, 직전 5년 평균에 비해서도 18%p 앞선 수치이다. 전국 수확률은 9%이며,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2%p 앞서고, 직전 5년 평균보다도 4%p 앞서는 수치이다. 루이지애나와 텍사스에서는 수확작업에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. 전체 응답자의 66%가 생육상황이 좋다고 응답했는데, 이는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같은 수치이고,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에는 3%p 낮은 수준이다.

□ 세계 기후 현황(7/31~8/6)

■ 유럽: 영국, 프랑스 북부 등에서는 주 중반에 5~35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이로 인해 농작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했지만 그 밖의 기간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진 덕분에 수확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. 독일, 폴란드 및 발틱 연안 국가들에서도 10~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. 이탈리아와 유럽 남동부 대부분의 지역에서도 10~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. 이와 대조적으로 루마니아, 불가리아 및 이베리아 반도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졌다. 스페인과 남동부 일부 지역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5~39°C까지 오르는 더운 날씨를 보였다. 스페인 남부와 동유럽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2~3°C 정도 높았고, 그 밖의 지역에서는 평년 수준 또는 평년에 비해 2°C 정도 낮은 날씨가 이어졌다.

■ 구소련(서부): 벨라루스와 러시아 서부에서는 10~3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. 우크라이나 전역에서도 10~30mm 내외의 비가 내렸으며, 이번 비로 일시적으로 기승을 부리던 가뭄도 해소되었다. 벨라루스,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 서부에서는 지난 평년에 비해 3°C 정도 기온이 높은 날이 이어졌다. 특히 우크라이나 남동부와 러시아 남부지역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5°C까지 오르는 더운 날이 계속되었다.

■ 동아시아: 중국 동부 여름작물 재배지역에서는 25~10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. 북부 평원지역에서부터 양쯔강 하류에 이르는 지역에서도 50mm 이상의 비가 내렸다. 광둥지역에서는 태풍 Nida의 영향으로 산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으며, 벼 재배지역에서는 최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졌다. 하지만 북부 평원의 서쪽 지역 및 Jiangxi 지역에서는 맑은 날씨를 보였다. 한편, 이번 비로 낮 최고기온이 40°C 가까이 올라가는 더운 날씨도 기세가 꺾였다. 북한 서부 지역에서는 25~5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, 남한에서는 지난 7월 1일 이후 누적 강우량이 평년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. 일본에서는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혼슈 중부지역에서는 25~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.

■ 호주: 밀 재배지 전역에서는 비가 내렸다. 뉴 사우스 웨일즈에서는 13~35mm 내외의 비교적 많은 비가 내렸고, 그 밖의 지역에서는 5~2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. 뉴 사우스 웨일즈와 퀸즐랜드 남부지역에서는 9월부터 면화 등의 파종작업이 시작되는데, 최근 내린

비와 더불어 관계용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져서 파종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.

■ 아르헨티나: 중부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졌고, 농 작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졌다. Buenos Aires, La Pampa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고, Buenos Aires 북동부에서는 10mm가 넘는 비가 내렸다. 이들 지역은 지난 한 주간 기온이 평년에 비해 1~2°C 정도 높았고, 낮 최고기온은 10°C 중반에서 20°C 초반까지 올랐다. La Pampa Buenos Aires, Cordoba 등에서는 밤사이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기도 했다. 북부 곡창지역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졌는데, 이 덕분에 면화와 다른 여름작물의 수확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졌다. 이들 지역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0°C 중반까지 오르는 더운 날씨를 보인 가운데 평균기온도 평년에 비해 3~5°C 정도 높았다. 아르헨티나 농림부에 따르면 8월 4일 기준 옥수수의 수확률은 71%였으며,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의 93%에 비해 낮은 편이다. 밀의 파종률은 90%으로,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%p 느린 편이다.

■ 브라질: 대부분의 지역에서 맑은 날씨를 보인 가운데 수확작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. Rio Grande do Sul, Santa Catarina 등에서는 30mm 미만의 소나기가 내리기도 했지만 그 밖의 남부 및 중부 전역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았고, 기온은 평년에 비해 조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. 남부 대부분의 지역에서도 기온이 평년에 비해 5°C 정도 높은 더운 날씨를 보였다. Parana 주정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8월 1일 기준 Parana 지역 내 밀의 50%가 filling 단계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.